

자동차 디자인과 문화



양 동 환
현대자동차 디자인 센터
울산디자인 2팀 디자이너

외국을 한번이라도 여행해 본 우리나라 사람이면 수많은 종류의 다양한 자동차로 일단 거리의 모습이 우리와는 달라 보인다는 사실을 금방 깨닫게 된다. 차 몇 대만 지나가면 똑같은 모습의 자동차들이 되돌이표처럼 반복되는 한국의 거리와는 사뭇 다른 것이다. 점차 확대되어가는 수입자동차 시장개방 압력 덕분에(?)에 외국에서 봤던 그런 자동차들을 이제 심심치 않게 거리에서 만나게 되었고 우리 거리의 풍경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제 외국산 자동차는 옛날만큼 신기한 존재는 아니고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은 어느 나라 무슨 메이커인지 모델명이 뭔지 쉽게 알기도 한다. 전문가의 경우 먼 거리에서 잠깐 보아도 어느 회사 차인지 금방 알아본다.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각 메이커들은 블라인드 테스트(Blind Test)를 통해 그 제품의 품질을 가늠해 보기도 한다. 메이커를 알 수 있는 엠블럼(Emblem)들을 모두 없앤 채 진행되는 이 테스트에서 '이 차는 ○○사 제품 같군요'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그 차의 성능도 많은

단서를 주지만 걸 모습 즉, 디자인에서 그 회사의 향기가 느껴지는 것이다. 그만큼 각 메이커의 디자인에는 다른 회사 제품과 무엇인가 다르게 보이는 각각의 고유성(Identity)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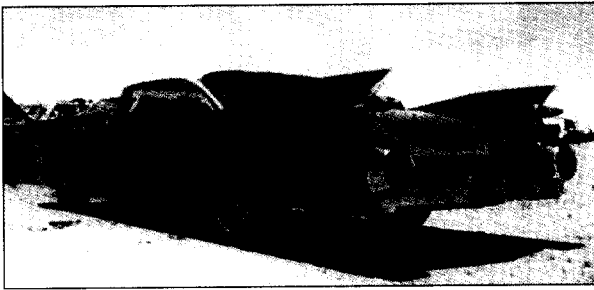
그렇다면 세계 각국의 자동차 디자인에는 어떤 고유한 특징이 있으며 이것은 어디에서 유래하는 것일까? 이는 디자인과 각국의 문화, 사회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어려운 주제이다. 이 글에서는 디자인은 그 사회의 문화를 반영한다는 관점에서 중요 생산국에 대한 지금까지 알려진 일반적인 연구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본다.

미 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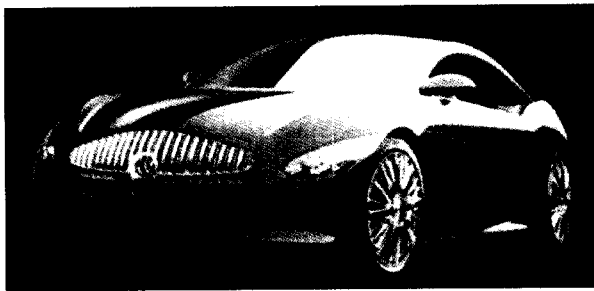
세계 최대의 자동차 생산국이자 세계의 문화를 선도해 나가는 미국의 자동차 디자인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 시장점유율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사실은 그 차의 디자인이 다분히 미국적이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와는 지리적 스케일이 확연히 다를 뿐 아니라 잘 정비된 도로망과 자동차를 중심으로 하는 풍요로운 생활양식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자동차가 3,000cc가 넘는 대형 엔진과 5m가 넘는 차체를 갖게 만들었고 그 크기만으로도 미국 자동차 디자인의 특징이 된다. 특히 2차 세계 대전후의 전승국으로서의 자신감과 낙천적인 사고, 전통적인 개척자 정신을 배경으로 아기자기하고 정교함보다는 다소 거칠며 선이 굵고 길며 다분히 장식적인 스타일을 가진 승용차가 디자인 되었다. 70년대 오일쇼크를 계기로 이런 경향은 많이 약화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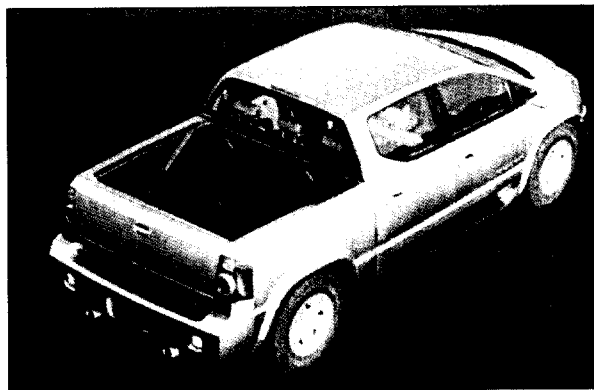
것이 사실이지만 엄청난 자국의 시장 규모를 통해 공격적이며 실험적인 스타일의 디자인은 계속 시도되고 있으며 실용주의(Pragmatism)에 바탕을 둔 트럭형 차량의 강세와 내장의 편의장치등도 미국 자동차 디자인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60년대 유행했던 장식적인 Tail Fin 디자인



Buick의 컨셉카 La Crosse
미국적 스타일링의 전통을 잇는다.



Dodge MAXX Cab, MPV+Truck의 신개념 차종

유럽

자동차 산업의 발생지로 100년이 넘는 자동차 역사와 오랜 역사의 문화를 가진 유럽은 디자인에 서도 역시 깊이 있고 다양한 특징을 갖는다. 이는 고급차나 대중적인 승용차 모두 세계 각국의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저력을 보면 알 수 있다.

흔히 유럽 자동차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독일차는 기능성에 충실한 합리적인 디자인으로 특징 지워진다. 화려한 장식보다는 운송수단으로서의 자동차 자체에 충실한 간결하면서도 정제된 선과 면으로 구성된 디자인은 안정감과 견고한 차라는 신뢰감을 주며 내장에서는 꼭 있어야 할 곳에 편리하게 배치된 조작장치나 편의 장비를 통해 고성능만큼이나 사용자에게 만족을 준다. 또한 발달된 생산기술은 제품의 끝 마무리를 통해 품질을 높여준다. 최근 디자인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단순하고 기하학적인 경향 역시 이런 전통속에서 발전한 독일 디자인의 영향이 크다.

영국은 현재 자국의 메이커를 갖고 있지 않다. 급변하는 자동차 산업 재편의 결과이다. 옛 영국 메이커의 디자인은 오랜 문화적 전통에서 나온 보수적인 스타일이 기본이다. 거기에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고급스럽고 조금은 사치스러운 품격이 롤스로이스, 재규어등의 고급차에 녹아 있다. 그러나 음악이나 여타 분야에서도 새로운 시대 흐름을 이끌어 냈던 영국 문화는 자동차 디자인에서도 새로운 감각을 계속 개발하여 오랜 전통과 잘 조화시켜 나가고 있다.

프랑스는 자국의 높은 예술적 자긍심 때문에 한편으로는 감각적이고 독창적이지만 다른 한편 전 세계적으로 호응을 받기에는 무리가 있는 모델들을 디자인해왔다. 유럽의 자동차 디자인에서도 그간 전면에서 나서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자동차 산업의 위기감은 프랑스 메이커들의 변신을 가져왔고 전체적인 조류를 타면서 그들이 장점으로 하는 창의적인 예술적 감각을 활용하고 있



Audi A2,
기하학적인 조형과 합리적인 독일 디자인의 특징을
보여준다.



Jaguar XK8
보수적이지만 감각적인 영국의 고급 스포츠 쿠페



프랑스 Renault사의 Avantime
컨셉카가 그대로 양산 모델이 되었고 독창적인 패키
지와 스타일링



Fiat Multipla
이탈리아의 창의적인 디자인이 돋보이는 소형차

다. 혁신적인 패키지(Package)나 컨셉트 카의 디자인을 거의 양산화시키는 등 프랑스 자동차 디자인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유럽 자동차 디자인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나라가 이탈리아이다. 정열적이면서 슬한 거장을 길러낸 예술적 토양의 문화가 투영된 그들의 디자인은 공예품과 같은 예술성과 창의적인 스타일로 대표된다. 페라리 같은 고성능 스포츠카에서는 카로체리아(Carrozzeria)로 불리는 소규모 생산업체의 장인정신(Craftmanship)이 돋보이며 양증맞은 피아트의 소형차에서는 평범함 속에서도 뭔가 튀어보이려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살아있어, 자동차 디자이너에게는 좋은 자극제가 된다.

이 밖에 사브나 볼보 같은 북유럽 메이커들은 열악한 환경에 맞게 안전을 위주로 하여 튼튼하지만 투박해 보이고 보수적이면서 절제된 특유의 디자인 경향을 보인다.

일본

후발국가지만 자동차 산업에 있어 무시할 수 없는 큰 세력을 형성한 일본 자동차 디자인의 특징은 생산성 위주의 깔끔하고 정교함이다. 사실 이런 힘 때문에 소형차에서 시작하여 고급차에 이르기까지 경제성과 품질로 세계시장에 크게 어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안정적인 품질과 성능을 가진 일본차의 디자인에 내려지는 평가는 무난하다 혹은 어느 선진업체를 잘 벤치마킹했다 정도로 폄하될 수 밖에 없었고 잘 마무리된 부분부분의 디자인을 감쌀 수 있는 큰 고유의 얼굴을 만들기 위해 일본 메이커들은 많은 노력을 하고있다. 바로 문화적 배경 차이의 극복이 큰 관건인 것이다.

발달된 정보통신으로 전 세계의 문화가 동시에 비슷하게 변화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자동차 산업계의 지각변동으로 인해 메이커의 수가 줄어드는 현재, 이상에서 언급한 디자인 특징의 구분



Toyota Yaris
Identity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Isuzu Kai 컨셉카
4WD 부분의 새로운 스타일링 개발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 모호해질 가능성도 있다. 그 예로 90년대 말부터 시작된 엣지(Edge) 디자인이나 기하학적인 조형은 이제 거의 모든 메이커에서 찾아볼 수 있는 디자인의 시대적 흐름이다. 그러나 큰 시대적 흐름 속에서 각자가 갖고 있는 오랜 문화적 전통이 쉽게 사라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역사를 통해 우리는 알고 있다.

양산된 차의 성능이 어느 정도 동등한 수준으로 평준화된 시장 상황에서 날로 다양해지는 소비자의 요구에 대응하고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합리적인 구매를 하는 까다로운 소비자의 입맛을 충족시

켜 제품이 성공하는데 디자인은 첨병의 역할을 맡고 있다. 그 동안 문화적 배경이 취약할 수 밖에 없었던 국내 업체에게 우리만의 얼굴을 갖는 전통을 만들어 내는 것은 어려운 숙제이며 앞으로의 필수적인 생존수단이 될 것이다.

만성적자에 시달리던 프랑스 르노사가 새로운 경영과 혁신적인 디자인의 성공으로 기술력에 있어서는 오히려 우위였던 일본의 닛산자동차를 흡수하며 화려하게 재기하고 있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양동환 : bucketyang@hanmail.net〉